

최근뉴스  
교육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 발간

이혜숙 기자 | jb@jbkns.com

승인 2020.03.13 10:13:41



## 공존의 인간학

제3집 2020년 2월  
ISSN 2020-1024

기획논문(발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

홍재화영(洪在化榮) 조선대의 시대-조선 후기 문헌의 연구와 문화

신호림(申浩林) 조선의 조선 후기 문헌의 연구와 문화

서영(徐英) 다문화시대의 문화성과 공동체

일반논문

하우봉(하우봉 교실) 조선의 문화현상과 공동체

이희(李熙) 조선의 문화현상과 공동체

홍준(洪俊) 조선의 문화현상과 공동체

김성수(金成洙) 조선의 문화현상과 공동체

김성수(金成洙) 조선의 문화현상과 공동체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일간전북 = 이혜숙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존의 인간학」은 전주대 인문학플러스(HK+)연구단이 연 2회 발간하는 인문학 학술지로 지난해 창간호와 제2집에 이어 세 번째 발간됐다.

제3집에는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라는 주제의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4편, 총 7편의 논문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되었다.

기획논문으로는 상하이대학 문화연구학과 왕샤오밍(王晓明) 교수의 <‘소인배’의 시대 -오늘날 중국인의 정신과 문화 상황>과 안동대 국어구문학과 신호림 교수의 <『몽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그리고 중국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허명철 교수의 <디마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이 포함되었다.

일반논문에는 전주대 사학과 하우봉 명예교수의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徂徠門派)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다자이 다미(太宰春台)의 『한관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와 일본 國立歴史民俗博物館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교수의 <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偵探使)>, 일본 고쿠시칸(國士館)대 유은경 강사의 <나카라이 도스미의 『계림정화 훈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이, 마지막으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성수 교수의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이 실렸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학플러스(HK+)연구단은 2018년 사업에 선정되어 인문학 관점의 '미래 공동체 대안' 연구와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뉴스홈 &gt; 사회/사건/사고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 발간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3-13 10:47

# 공존의 인간학

제3집 | 2020년 2월

ISSN 2636-1604

### 기획논문 |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

왕샤오밍(王曉明) | '소인배'의 시대 -오늘날 중국인의 정신과 문화 상황

신호림 | 『용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허명철(許明哲) |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

### 일반논문

하우봉 |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徂徠門派)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  
-다자이 다이(太宰春臺)의 『한관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 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偵探使)

유은경(劉銀景) |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

김성수 |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  
-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 발간.(자료제공=전주대)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존의 인간학」은 전주대 인문학플러스(HK+)연구단이 연 2회 발간하는 인문학 학술지로 지난해 창간호와 제2집에 이어 세 번째 발간됐다.

제3집에는 &lt;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gt;라는 주제의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4편, 총7편의 논문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됐다.

기획논문으로는 상하이대학 문화연구학과 왕샤오밍(王曉明) 교수의 &lt;'소인배'의 시대 -오늘날 중국인의 정신과 문화 상황&gt;과 안동대 국어구문학과 신호림 교수의 &lt;『용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gt;, 그리고 중국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허명철 교수의 &lt;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gt;이 포함됐다.

일반논문에는 전북대 사학과 하우봉 명예교수의 &lt;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徂徠門派)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다자이 다이(太宰春臺)의 『한관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gt;와 일본 國立歷史民俗博物館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교수의 &lt;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偵探使)&gt;, 일본 고쿠시칸(國士館)대 유은경 강사의 &lt;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gt;이, 마지막으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성수 교수의 &lt;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 -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gt;이 실렸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학플러스(HK+)연구단은 2018년 사업에 선정돼 인문학 관점의 '미래 공동체 대안' 연구와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ulu0402@naver.com

전국  
전북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 발간

조판철 기자 | pcho9293@gukjenews.co.kr

승인 2020.03.13 18:22:35



# 공존의 인간학

제3집 | 2020년 2월

ISSN 2636-1604

### 기획논문 |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

왕샤오밍(王晓明) | '소인배'의 시대 -오늘날 중국인의 정신과 문화 상황

신호림 | 『옹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허명철(許明哲) |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

### 일반논문

하우봉 |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徂徠門派)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  
-다자이 슌다이(太宰春台)의 『한관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 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偵探使)

유은경(劉銀暉) |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

김성수 |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  
-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전주= 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존의 인간학」은 전주대 인문한국플러스(HK+)연구단이 연 2회 발간하는 인문학 학술지로 지난해 창간호와 제2집에 이어 세 번째 발간됐다.

제3집에는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라는 주제의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4편, 총 7편의 논문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되었다.

기획논문으로는 상하이대학 문화연구학과 왕샤오밍(王晓明) 교수의 <'소인배'의 시대 -오늘날 중국인의 정신과 문화 상황>과 안동대 국어구문학과 신호림 교수의 <『옹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그리고 중국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허명철 교수의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이 포함되었다.

일반논문에는 전북대 사학과 하우봉 명예교수의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徂徠門派)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다자이 다이(太宰春台)의 『한관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와 일본 國立歷史民俗博物館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교수의 <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偵探使)>, 일본 고쿠시칸(國士館)대 유은경 강사의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이, 마지막으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성수 교수의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 -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이 실렸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연구단은 2018년 사업에 선정되어 인문학 관점의 '미래 공동체 대안' 연구와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HOME > 문화 > 문화일반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 발간

이재봉 기자 | 승인 2020.03.13 20:51 | 댓글 0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가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을 발간했다.

'공존의 인간학'은 전주대 인문한국플러스(HK+)연구단이 연 2회 발간하는 인문학 학술지로 지난해 창간호와 제2집에 이어 세 번째 발간됐다.

제3집에는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라는 주제의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4편, 총7편의 논문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됐다.

기획논문으로는 상하이대학 문화연구학과 왕샤오밍 교수의 '소인배의 시대-오늘날 중국인의 정신과 문화 상황'과 안동대 국어구문학과 신호림 교수의 '용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그리고 중국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허명철 교수의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이 포함됐다.

일반논문에는 전북대 사학과 하우봉 명예교수의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다자이 다이의 '한관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와 일본 아라키 가즈노리 교수의 '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偵探使)', 일본 고쿠시칸대 유은경 강사의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이 마지막으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성수 교수의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 -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이 실렸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연구단은 2018년 사업에 선정되어 인문학 관점의 '미래 공동체 대안' 연구와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공존의 인간학

제3집 | 2020년 2월  
ISSN 2638-1604

기획논문 |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  
왕샤오밍(王曉鳴) | 조선시대 시대-오늘날 중국인의 정신과 문화 상황  
신호림 | 용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허명철(許明哲) |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

일반논문  
하우봉 |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小ライ文派)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  
-다자이 다이(大宰守)의 '한관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  
아라키 가즈노리(阿部 嘉典) | 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偵探使)  
유은경(柳恩敬) |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  
김성수 |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 -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



HOME > 교육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 발간

👤 임종근 기자 | ⌚ 승인 2020.03.15 17:27 | 💬 댓글 0



## 공존의 인간학

제3집 | 2020년 2월  
ISSN 2636-1604

### 기획논문 |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

왕샤오밍(王曉明) | '소인배'의 시대 -오늘날 중국인의 정신과 문화 상황

신호림 | 『응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허명철(許明哲) |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

### 일반논문

하우봉 |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徂徠門派)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  
-다자이 슌다이(太宰春台)의 『한관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 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偵探使)

유은경(劉銀景) |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

김성수 |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  
-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존의 인간학'은 전주대 인문한국플러스(HK+)연구단이 연 2회 발간하는 인문학 학술지로 지난해 창간호와 제2집에 이어 세 번째 발간됐다.

제3집에는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라는 주제의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4편, 총7편의 논문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됐다. 기획논문으로는 상하이대학 문화연구학과 왕샤오밍(王 明) 교수의 '소인배'의 시대 오늘날 중국인의 정신과 문화 상황'과 안동대 국어구문학과 신호림 교수의 '응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그리고 중국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허명철 교수의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이 포함됐다.

일반논문에는 전북대 사학과 하우봉 명예교수의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다자이 다이(太宰春台)의 '한관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와 일본 國立歷史民俗博物館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교수의 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偵探使), 일본 고쿠시칸(國士館)대 유은경 강사의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이, 마지막으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성수 교수의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 -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이 실렸다.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 발간

신호송 기자 | 승인 2020.03.13 10:20 | 댓글 0

[대학저널 신호송 기자]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가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을 발간했다.

「공존의 인간학」은 전주대 인문한국플러스(HK+)연구단이 연 2회 발간하는 인문학 학술지로 지난해 창간호와 제2집에 이어 세 번째 발간됐다.

제3집에는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라는 주제의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4편, 총7편의 논문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됐다.

기획논문으로는 상하이대학 문화연구학과 왕샤오밍(王晓明) 교수의 <'소인배'의 시대 -오늘날 중국인의 정신과 문화 상황>과 안동대 국어구문학과 신호림 교수의 <『옹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그리고 중국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허명철 교수의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이 포함됐다.

일반논문에는 전북대 사학과 하우봉 명예교수의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徂徠門派)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다자이 다이(太宰春台)의 『한관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와 일본 國立歷史民俗博物館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교수의 <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偵探使)>, 일본 고쿠시칸(國士館)대 유은경 강사의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이, 마지막으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성수 교수의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 -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이 실렸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연구단은 2018년 사업에 선정돼 인문학 관점의 '미래 공동체 대안' 연구와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공존의 인간학

제3집 | 2020년 2월

ISSN 2636-1604

### 기획논문 |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

왕샤오밍(王晓明) | '소인배'의 시대 -오늘날 중국인의 정신과 문화 상황

신호림 | 『옹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허명철(許明哲) |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

### 일반논문

하우봉 |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徂徠門派)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  
-다자이 슌다이(太宰春台)의 『한관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 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偵探使)

유은경(劉銀景) |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

김성수 |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  
-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OME > 전북 > 교육/학교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 발간

김봉환기자 | 승인 2020.03.14 18:02 | 댓글 0



# 공존의 인간학

제3집 | 2020년 2월

ISSN 2636-1604

### 기획논문 |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

- 왕샤오밍(王晓明) | '소인배'의 시대 -오늘날 중국인의 정신과 문화 상황
- 신호림 | 『옹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 허명철(許明哲) |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

### 일반논문

- 하우봉 |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徂徠門派)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  
-다자이 다이(太宰春台)의 『한관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
-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 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偵探使)
- 유은경(劉銀景) |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
- 김성수 |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  
-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존의 인간학'은 전주대 인문학플러스(HK+)연구단이 연 2회 발간하는 인문학 학술지로 지난해 창간호와 제2집에 이어 세 번째 발간됐다.

제3집에는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라는 주제의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4편, 총 7편의 논문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됐다.

기획논문으로는 상하이대학 문화연구학과 왕샤오밍(王晓明) 교수의 '소인배'의 시대-오늘날 중국인의 정신과 문화 상황, 안동대 국어구문학과 신호림 교수의 '옹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그리고 중국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허명철 교수의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이 포함됐다.

일반논문에는 전북대 사학과 하우봉 명예교수의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徂徠門派)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다자이 다이(太宰春台)의 '한관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 일본 國立歷史民俗博物館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교수의 '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偵探使)', 일본 고쿠시칸(國土館)대 유은경 강사의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이, 마지막으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성수 교수의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이 실렸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학플러스(HK+)연구단은 2018년 사업에 선정되어 인문학 관점의 '미래 공동체 대안' 연구와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 발간

머니투데이 | 권현수 기자

2020.03.13 17:19



# 공존의 인간학

제3집 | 2020년 2월

ISSN 2636-1604

### 기획논문 |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

왕샤오밍(王曉明) | '소인배'의 시대 -오늘날 중국인의 정신과 문화 상황

신호림 | 『용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허명철(許明哲) |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

### 일반논문

하우봉 |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徂徠門派)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  
-다자이 슌다이(太宰春台)의 『한관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 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偵探使)

유은경(劉銀景) |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

김성수 |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  
-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최근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존의 인간학은 전주대 인문한국플러스(HK+)연구단이 연 2회 발간하는 인문학 학술지로 지난해 창간호와 제2집에 이어 세 번째 발간됐다.

제3집에는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란 주제의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4편, 총7편의 논문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됐다.

기획논문으로는 상하이대학 문화연구학과 왕샤오밍(王曉明) 교수의 '소인배의 시대-오늘날 중국인의 정신과 문화 상황'과 안동대 국어구문학과 신호림 교수의 '용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중국 연변대 사회학과 허명철 교수의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이 포함됐다.

또 일반논문에는 △전북대 사학과 하우봉 명예교수의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徂徠門派)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다자이 다이(太宰春台)의 한관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 △일본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교수의 '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偵探使)' △일본 고쿠시칸(國士館)대 유은경 교수의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성수 교수의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 -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이 실렸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연구단은 지난 2018년 사업에 선정돼 인문학관점의 '미래 공동체 대안' 연구와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  
교육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 발간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승인 2020.03.13 10:30:02



[투데이안]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존의 인간학'은 전주대 인문한국플러스(HK+)연구단이 연 2회 발간하는 인문학 학술지로 지난해 창간호와 제2집에 이어 세 번째 발간됐다.

제3집에는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라는 주제의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4편, 총 7편의 논문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됐다.

기획논문으로는 상하이대학 문화연구학과 왕샤오밍(王晓明) 교수의 <'소인배'의 시대 -오늘날 중국의 정신과 문화 상황>과 안동대 국어구문학과 신호림 교수의 <'몽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그리고 중국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허명철 교수의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이 포함됐다.

일반논문에는 전북대 사학과 하우봉 명예교수의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徂徠門派)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다자이 다이(太宰春台)의 '한관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와 일본 國立歷史民俗博物館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교수의 <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偵探使)>, 일본 고쿠시칸(國土館)대 유은경 감사의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이, 마지막으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성수 교수의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 -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이 실렸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연구단은 지난 2018년 사업에 선정돼 인문학 관점의 '미래 공동체 대안' 연구와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공존의 인간학

제3집 | 2020년 2월  
ISSN 2636-1604

기획논문 |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

왕샤오밍(王晓明) | 소인배의 시대 -오늘날 중국의 정신과 문화 상황

신호림 | '몽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허명철(許明哲) |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

일반논문

하우봉 |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徂徠門派)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

-다자이 다이(太宰春台)의 '한관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 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偵探使)

유은경(柳恩敬) |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

김성수 |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

-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인쇄 확대 축소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공존의 인간학' 제3집 발간

2020-03-14 17:32, 김광석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공존의 인간학, #인문한국플러스, #학술지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을 발간했다.

'공존의 인간학'은 전주대 인문한국플러스(HK+)연구단이 연 2회 발간하는 인문학 학술지로 지난해 창간호와 제2집에 이어 세 번째 발간됐다.

제3집에는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라는 주제의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4편 등 총7편의 논문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됐다.

기획논문으로는 상하이대학 문화연구학과 왕샤오밍(王晓明) 교수의 '수위배이 시대 - 오늘날 중국인이 정서가 무한 덕경제와 공존의 의미', 그리고 중국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허명철 교수의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이 포함됐다.

일반논문에는 전북대 사학과 하우봉 명예교수의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徂徠門派)와 조선 통신사의 교류-다자이 다이(太宰春台)의 '한관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와 일본 國立歷史民俗博物館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교수의 '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偵探使)', 일본 고쿠시칸(國土館)대 유은경 강사의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이, 마지막으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성수 교수의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 - 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이 실렸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연구단은 2018년 사업에 선정돼 인문학 관점의 '미래 공동체 대안' 연구와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공존의 인간학

제3집 | 2020년 2월  
 ISSN 2036-1804

기획논문 |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  
 하우봉(하우봉) | 조선시대 서해-400년 공존의 정서와 문화  
 안희정 | 탈유교사회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의리정신과 공존의 의미  
 허명철(허명철) |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

### 일반논문

하우봉 |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파(徂徠門派)의 조선 통섭주의 이해  
 -다자이 다이(太宰春台)의 '한관창화고(韓館倡和稿)'를 중심으로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 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탐사(偵探使)  
 유은경(유은경) |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  
 김성수 | 1910년대 한의학의 전회(轉回)  
 -전통(傳統)에서 회통(匯通)으로의 변환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